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 희망 일시	2025. 2. 27.(목) 11:00부터 보도 요청
문의	행사진행: 총무과 등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snupr2@snu.ac.kr

배포일: 2025.2.27.(목)

서울대,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2025학년도 입학식을 2월 27일(목)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2025년 신입생은 학사과정 3,868명,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2,802명, 박사과정 808명으로 총 7,478명이다. 서울대는 기존에 3월 시행해온 입학식을 강의 등 학사운영 혼선 방지와 학내 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2월로 조정하였다.

□ 유홍림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학생활이 설렘 가득한 여정으로 다채롭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용기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유 총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연결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찾아가는 모든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첨부1: 입학식사>

□ 축사 연사로 초청된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박미선 교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에 대한 탐색, 동료들과의 공동체적 성장 등을 강조하며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 리더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2·3: 축사>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우리의 다짐’ (신입생 대표), 입학식사(유홍림 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축사(국제농업기술대학원 박미선 교수) 등

※ 붙임: 입학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축사(박미선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첨부1】 2025년 입학식사(총장)

2025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에 축하합니다!

격동이나 격변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아내기 힘들 만큼 나라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긴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그 겨울의 끝이자 봄의 시작인 오늘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과 함께 여러분은 여러 방향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에 다 가볼 수 없고,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듯이, 펼쳐진 모든 길을 다 걸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 집중해 공부할 것인지, 무슨 과목을 어떤 순서로 수강할 것인지, 학업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결단의 순간들이 모여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축적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를 자양분 삼아 여러분은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올해는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46년 개교 이래 뿔뿔이 흩어져 있던 13개 단과대학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5년 관악 캠퍼스를 중심으로 속속 모이게 되었습니다. 종합화 직후 15개 단과대학 88개 학과로 출발한 서울대학교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2025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전공, 과정의 개수를 모두 합치면 430개가 넘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작은 우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알아야 할 지식, 고민하고 답해야 할 질문,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 캠퍼스에는 220개가 넘는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지만 ‘관악 시대’의 초창기에 건물은 불과 24개 동뿐이었습니다. 관악산 서쪽 기슭의 황량한 공간에 듬성 듬성 자리 잡았던 건물들이 수백 개로 늘어나 지금의 웅장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복잡계 이론 생물학자 스투어트 카우프만(Stuart Kauffman)에 따르면, 작고 단순한 요소가 모여서 크고 복잡한 구조와 체계가 되는 발전은 인접한 가능성의 탐색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가 제안한 이러한 ‘인접 가능성(the adjacent possible)’이라는 개념은 물질과 생명,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학 저술가 스티븐 존슨(Steven Johnson)은 인접 가능성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작은 방 하나가 있다. 문을 열고 이 방에 들어가면 사방으로 문이 생겨난다. 그 문 가운데 하나를 여는 순간 또 다른 방이 생겨나고, 그 방에 들어가면 사방으로 또다시 문이 생겨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방 하나는 무한대에 가깝게 확장되는 거대한 건물이 됩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결국 제한된 현실의 가용 자원을 창의적으로 조합하려는 인류의 끈질긴 노력이 거둔 결실입니다.

관악 캠퍼스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어느 방이 더 좋을지 몰라 복도를 서성이기만 하다가 문 열기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고 단순한 출발이 없다면 인접 가능성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면서 놀랍게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도 처음에는 하나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방을 처음 택할 것인지, 그리고 들어간 방에서 어느 문을 열 것인지는 밸런스 게임에서의 답고르기와는 다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가지치기처럼 분화가 일어나지만, 긴 여정에서 그 경로는 다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방과 방을 연결하는 방식은 무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이러한 설렘 가득한 여정으로 다채롭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우선 ‘서울대학교 공통교육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공통교육 과정의 목표는 전공과목 수강을 위한 준비나 단편적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개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타인과 공감하고 고민한 바를 실천하는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힘차게 출범하는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이 바로 이러한 교육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부대학은 소속과 전공의 구분 없이 서울대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공통핵심역량 교육’, ‘융합 교육’, ‘글로벌 교육’ 을 제공하는 교육 혁신 플랫폼입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은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울대학교 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몸소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도전과 공감으로 미래를 여는 지성’.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입니다. 여러분은 서울대학교라는 소우주의 어느 방으로 들어가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다양한 가능성을 연결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찾아내기 위한 모든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확실한 인접 가능성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지금은 낯설지만 앞으로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 줄 든든한 25학번 친구들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관악에서의 첫날을 뿌듯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종섭입니다. 45만 동문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서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2025년은 서울대가 개학 130주년과 함께 종합화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75년 모교가 이곳 관악산 기슭으로 옮겨옴으로써 종합화한 관악캠퍼스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서울대가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을 지향해온 지난 반세기의 목표를 뛰어넘어 또 다른 50년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전진하는 견인차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혼란한 시국과 불안한 경제 상황, 국제적으로는 미·중 경쟁 속에 트럼프 미 대통령 등장 이후 관세 전쟁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전 산업 확대 등 최근의 과학 기술 혁명은 현재의 눈으로 미래의 세상을 가늠하기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

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울대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도서관 칸막이에 갇혀 시험이나 걱정하는 험량한 인재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창발성이 샘솟는 역동적인 인재가 될 것입니다. 관악산 숲 향기가 가득한 관악캠퍼스에서 긴 호흡으로, 더 멀리,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저는 59년전 지금의 인문대, 자연과학대, 사회과학대 등 3개 대학으로 분리되기 전의 문리과대학에 입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업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전공 지식도 도움이 되었지만, 대학 시절의 각종 동아리 활동 등으로 리더십을 훈련받고 봉사하는 즐거움도 체득한 것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음이 특권인 여러분들은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 인간관계를 만들고, 뜨거운 연애도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들이 졸업 후 가입하게 되는 동창회의 장학 사업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1970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학생 수는 13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이번 1학기에만 75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성적으로만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 등 공동체에 봉사하는 리더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총동창회 사무실이 관악캠퍼스 안에 새롭게 건축된 75동 융합관,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2층에 입주했습니다. 선배들의 도움이 절실할 때 동창회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동창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총동창회는 45만 서울대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담아내는 큰 그릇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감사합니다.

【첨부3】 축사(박미선 교수)

2025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입시를 준비하면서 목표를 세우

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보낸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손꼽히는 큰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나’와 ‘우리’, ‘시간’과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어딘가 숨어 있는 나를 한순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나를 알아가고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대학생으로서 보내는 시간은 본격적으로 나를 세상에 던지면서 ‘세계-내-존재’인 나를 알아가고, 내 삶의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학생은 10대를 지나 20대를 마주합니다. 20대는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 시기입니다. 10대에게 주어지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기반으로 사고의 틀, 사유의 습관을 형성하면서 독립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20대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대학생으로서 보낼 것이며,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은 물리적 캠퍼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울대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기회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익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정해진 답을 가진 문제를 풀어내는 데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답이 명확한 문제에 길들여진 학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고, 문제에 물음을 던지고, 새로운 문제를 찾기도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안내할 것입니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의 전공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전공을 접하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융합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논리적 상상력을 맘껏 펼치기 바랍니다. 학점은 학습의 결과이지 학습의 목표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대학은 함께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동료와 함께 배웁니다. 때론 경쟁하기도 하지만 동료는 함께 학습하면서 서로의 삶을 자극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대학에서는 학기를 마칠 때쯤,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 평가합니다. 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서 주관식 평가 단골 문장은 ‘동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입니다.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교수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배우고 익히는 기쁨을 맘껏 누리시고 서로에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10대를 보내고 20대에 접어드는 지금, 여러분은 세계/사회 속의 나,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속한 세계/사회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며 나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도시, 국가, 대륙, 지구, 우주. 내가 속해있는 공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세계/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 산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전공에 상관없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초월한 책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내외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리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리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오늘 우리는 여실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더는 함께 하는 사람과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강의, 현장 실습, 세미나, 사회공헌활동, 동아리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의 다양한 면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맥락을 스스로 해석하며,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보이고, 노력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적 태도를 갖춘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아가고, 다른 존재를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늘 신입생으로서 지닌 기대와 설레임을 잘 기억하고,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히면서 성실히 세상을 배워가기 바랍니다. 우

리 함께 서울대인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당당한 어른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